

사설

북한산 관통도로 안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북한산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을 통과하는 총연장 25.3km의 8차선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착공할 예정이라 한다. 수도권에 원활한 교통대책과 점증하는 물류의 수송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건설교통부와 해당 주무부서의 이상과 같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다. 70년대 이후 수도권은 팽창 일로에 있으며, 언제나 동일한 논리에 의거할 수 많은 주변환경을 파괴하였다. 90년대 들어 촉발되기 시작한 환경운동단체들의 환경보호운동이나 시민단체의 환경 지키기 운동은 환경파괴의 혹독한 대가를 받음 없이 날이 멀지 않았음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 위주의 정책은 수도권을 인구과밀지역으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도 수도권으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촉발시켰다. 이로 인해 발생한 주택, 인권, 노동, 주거환경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

며,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과 성장위주의 정책이 존재하는 한 도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도권은 회색 시멘트 건물 숲으로 덮이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들의 생존권 내지 환경권은 철저히 유린될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개발, 인구의 분산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녹지 공간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우리와 동일한 생명체들이 그곳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 인간들을 위해 그곳을 파괴하면 그 과보호 인간들이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과보호는 우리 세대의 몫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눈앞의 편리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자연파괴와 함께 문화유적이 파괴된다는 것은 차라리 죄악이라 표현해야 마땅할 것이다.

명분없는 분규 이제그만

정상상태였다면 태고종은 지금 한창 종조(宗祖)인 태고 보우 국사의 탄신 700주년을 봉축하는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태고종은 분규 심화로 자칫 분종에까지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자랑스런 종조 선양사업을 하기는 커녕 후손으로서 종조에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분규가 깊어져야 하는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악화일로에 있는 태고종에 많은 불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종단 발전과 대중교화에 온 힘을 쏟아도 역부족인 판에, 내부 문제를 승가다운 지혜로 풀지 못하고 상대 탓으로만 돌리면서 분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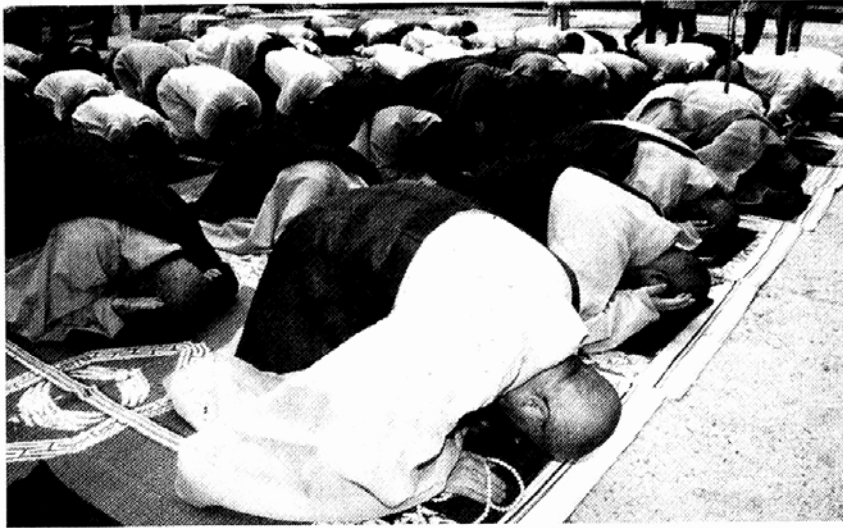
이번 태고종 사태에서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공부하는 행자들과 강원도의 학인들을 분쟁에 동원했다는 점이다. 아직 수행자로서의 배움의 초입에 있는 학인들과 행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할망정 싸움 한 가운데 동원시킨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가. 이 점만 해도 백번 참회하

고 참회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다.

그나마 태고종이 몇 번의 무력충돌 위기를 넘긴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승가가 대화로써 화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속인들의 스승 노릇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 전통의 무게나 인적 구성으로 보아도 태고종의 저력은 아직 만만치 않다고 본다. 지금처럼 뒤에서는 서로 '누가 이기나 보자' 식의 증징계를 계속 가하면서는 협상 테이블에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있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무조건 우리쪽 주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태고종이 끝내 화합을 구원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으로 간다면 결국 자멸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태고 보우국사의 탄신일이 11월에 들어 있다. 빨리 내분을 끝내고 화합 종단으로 돌아가 종조의 탄신 7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태고종도 전체가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과 18개 불교단체는 17일 조계사에서 '비폭력 평화 실현 불교인 참회정진' 입재식을 봉행하고 108참회에 들어갔다.

조계종 부·국장스님 15명-재가단체 회원 200명

조계사에서 '비폭력 평화' 참회정진

22일 세미나 개최

"저희는 우리 모두 서로를 동정하고 관용하며 이타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해인사 대불문제로 야기된 폭력 사태에 이어 태고종이 분규에 휩싸여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부대중이 처음으로 비폭력 평화실현을 위한 참회정진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총무원 부·국장스님 15명과 총무원, 중앙선도회, 참여불교 재가연대, 포교사단 등 불교계 18개 단체로 구성된 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원 등 200여명은 17일 조계사 대웅전 마당에서 비폭력 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참회정진' 입재식을 갖고 일주일간의 108참회 정진에 들어갔다.

108배 참회정진과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된 이날 입재식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인사 사명을 통해 "이번 참회정진은 해인사 대불문제로 또다시 야기된 불교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를 뿌리 뽑고 비폭력 정착을 위해서는 자기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사부대중의 기도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문화의 정착을 호소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참회정진을 계기로 다시는 불교계에 폭력문화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이를 사회적으로도 회향해 한반도에 생명 평화 문화가 자리잡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참회정진의 원력

을 모아 22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 허우성 경희대 교수가 '불교정진에 입각한 폭력의 정의'를,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근현대불교사를 통해 본 폭력과 그 원인',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비폭력 평화실현을 위한 현실적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문화의 정착을 호소하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참회정진을 계기로 다시는 불교계에 폭력문화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이를 사회적으로도 회향해 한반도에 생명 평화 문화가 자리잡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참회정진의 원력

조계종 승려 특별 분한신고

1,975명에 11월 한달동안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은 오는 11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승려 특별 분한신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될 특별 분한신고는 2000년 정기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1,975명에게 마지막 구제기간을 두어 자격에 결격이 없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고, 승적정비를 완료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조계종 승려가 이번 승려 특별 분한신고 기간에도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한신고 시행

입력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회의에서 이전대책위는 지난 2월 안양학사를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은 만큼 이사회 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대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의견을 모았다.

중앙승가대 안양학사

임대방식 수익사업 활용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대은)는 14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안양학사 활용 문제를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현대만평

Modern cartoon titled '현대만평' (Modern Cartoons) by Park Gyu-won. It depicts a group of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with one person holding a sign that says '분쟁 해결' (Resolve Dispute). The cartoon is titled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나' (Should we atone for the stone?).

태고종 분종 위기

총무원측-비상회의 수차례 협상 결렬

태고종 내분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분종(分宗)까지 우려되고 있다.

13일 비상대책회의 측의 성복동 총무원 청사 진입 이후 총무원측과 비상대책회의 측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16일 현재까지 몇차례의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가 양보없이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18일 오후 3시 총무원 청사에서 각 5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다시 협상에 들어가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총무원측은 14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82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총무원 부원장에

윤산 스님(전총사 주지를 선출했다. 총회의원 36명 가운데 27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황화, 윤경, 수종 스님 등 비상대책회의측 총회의원 14명을 제명하고 7월 30일 열린 전국승려대회 결의사항 무효화했으며 이에 가담한 스님들을 반종행위자로 징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비상대책회의는 13일 새벽 6시경 기습적으로 성복동 총무원 청사에 진입해 총무원 측 스님들을 청사밖으로 퇴거시켰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경 총무원 측 스님들도 경찰에 의해 다시 대거 청사내로 들어가 대치상태로 있다. 16일 현재 모두 청사에서 물러 나온 상태다.

해외거주 국제포교사 뽑는다

조계종 11월 20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대 상운)이 해외동포로 현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포교사를 모집한다.

해외동포 국제포교사 모집은 외국에서 실질적인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과 교포들에게도 국제포교사 자격을 줌으로써 국제포교사 자격의 영역을 확대하고 포교활동의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다.

참가자격은 조계종 소속 스님 및 재가신도로 해외 현지 거주자 및 포교활동 경력자라야 하며, 해당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포교원은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가

릴 방침이다. (02)720-7060 한명우 기자

베트남 주석 부인 웬티빙

23일 조계사 대웅전 참배

천득령(Tran Duc Luong) 베트남 국가주석 부인 웬티빙(Nguyen Thi Vinh) 여사가 23일 오전 11시 15분 조계사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웬티빙 여사 측이 22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국가주석 내외의 한국 국민방문 기간동안 한국 사찰을 둘러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외교통상부가 조계사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웬티빙 여사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환담을 나눈 후 대웅전을 참배할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미주타워' (Misu Tower) semiconductor products. It features the company name in large characters, a list of regional offices (부산, 밀양, 경남, 마산, 경북, 영주, 강원, 원주), and a toll-free number 011-9996-8872. The ad also includes a list of distributor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